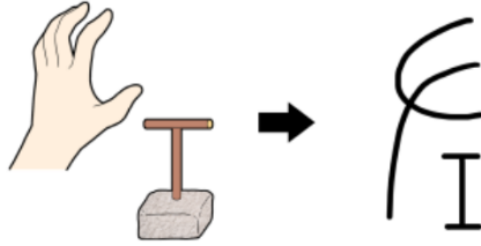


7(2)
-
41

회의문자 ㉠



左

원 좌

左자는 '왼쪽'이나 '돕다', '그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左자는 又(또 우)자와 工(장인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左자를 보면 왼손에 공구를 쥔 모습이 𠂔 그려져 있었다. 左자는 장인이 손에 공구를 쥔 모습을 응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명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금문에서는 손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가 필요해짐에 따라 又자에 工자를 결합해 '왼쪽'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오른손은 옳고 정의롭다는 인식이 있지만, 왼손은 오른손을 보조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左자는 '왼손'이라는 뜻 외에도 '그르다', '옳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𠂔

금문

𠂔

소전

左

해서

7(2)
-
42

회의문자 ㉠



直

곧을 직

直자는 '곧다'나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直자는 目(눈 목)자와 十(열 십)자, 乚(숨을 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直자의 갑골문을 보면 단순히 目(눈 목)자 위에 획이 하나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눈이 기울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눈 위에 획을 하나 그려 넣었던 直자는 금문에서부터 눈을 감싼 형태의 획이 하나 더해져 𠂔 '곧다'라는 뜻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直자는 때로는 '가격'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가격이란 정확해야 하기에 '바르다'라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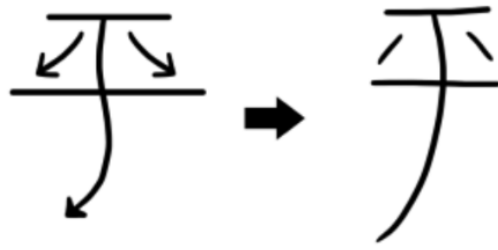
소전

直

해서

7(2)
-
43

지사문자 ①



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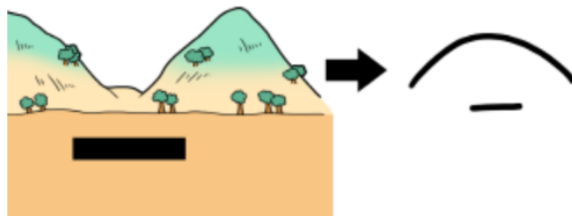
평평할
평

쑤자는 '평평하다'나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쑤자는 干(방패 간)자와 八(여덟 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쑤자는 '방패'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사물의 모습을 본뜬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쑤자는 악기 소리의 울림이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뜻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쑤자는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고르거나 평평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후에 '안정되다'나 '화목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7(2)
-
44

지사문자 ①



下

아래 하

下자는 '아래'나 '밑', '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下자는 아래를 뜻하기 위해 만든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下자의 갑골문을 보면 윗부분은 오목하게 아랫부분은 짧은 획으로 ㄷ 그려져 있었다. 윗부분의 오목한 형태는 넓은 대지를 표현한 것이다. 아래의 짧은 획은 땅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下자는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하여 '아래'나 '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금문에서 숫자 二(두 이)자와 자주 혼동되었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아래의 획을 세운 형태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의 下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45

형성문자 ①



漢

한수/
한나라
한

漢자는 '한나라'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나 漢자는 본래 '물 이름 한'이라는 뜻으로 먼저 쓰였었다. 漢자에 쓰인 𣎵 자는 진흙을 뜻하는 𣎵(진흙 근)자가 변형된 것으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漢자는 진흙이 섞여 평야를 이루던 지역의 강을 뜻했었다. 이곳이 바로 양쯔강의 지류 가운데 하나인 한수(漢水)라는 곳이다. 중국 한나라는 이 지역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국호를 漢으로 하였다. 이후 漢자는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한족(漢族)을 대표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𣎵

소전

漢

해서

7(2)
-
46

회의문자 ①



海

바다 해

海자는 '바다'나 '바닷물', '크다', '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海자는 水(물 수)자와 每(매 양 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每자는 비녀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는 어머니를 𠂔 그린 것이다. 고대 모계사회에서는 대지나 바다를 '여성'에 비유하곤 했다. 海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어머니의 물'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중국의 초기국가인 상(商)나라는 내륙 깊숙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갑골문에서는 海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海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금문 이후로 지금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𣎵

금문

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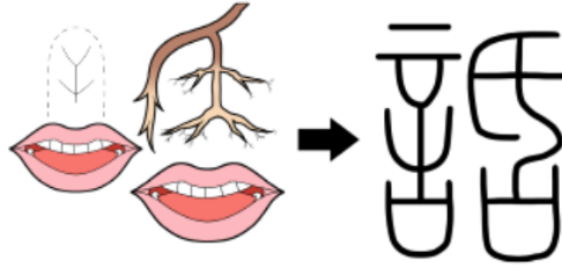
소전

海

해서

7(2)
-
47

회의문자 ①



話

말씀/
말할
화

話자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話자는 言(말씀 언)자와 舌(혀 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니 話자는 '혀'와 '말'이 함께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舌(말을 팔)자가 들어간 譌(말씀 화)자가 쓰였었다. 舌에 '막다'라는 뜻이 있으니 譌자는 '말을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왜 말을 억제하는 것일까? 譌자는 '좋은 말은 하되 나쁜 말은 억제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아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려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譌자가 '말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면서 마치 혀를 놀려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

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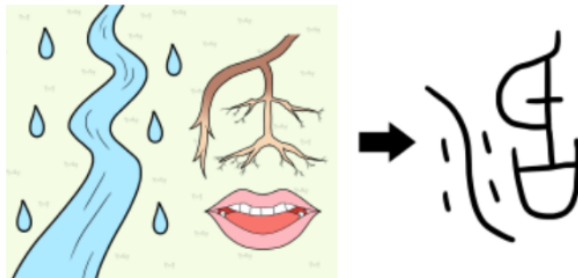
소전

話

해서

7(2)
-
48

회의문자 ①



活

살
활

活자는 '살다',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活자는 水(물 수)자와 舌(혀 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舌자는 뱀의 혀바닥을 그린 것으로 '혀'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活자는 혀(舌)에 수분(水)이 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다'를 뜻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舌자가 아닌 '원활하다'라는 뜻을 가진 氏+口(팔)자가 쓰였었다. 이것은 '물의 흐름이 원활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몸속 혈액이 원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글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해석 역시 달라졌다.

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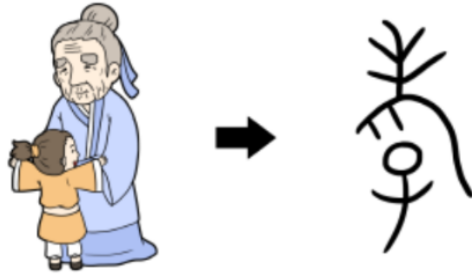
소전

活

해서

7(2)
-
49

회의문자 ㉠



孝

효도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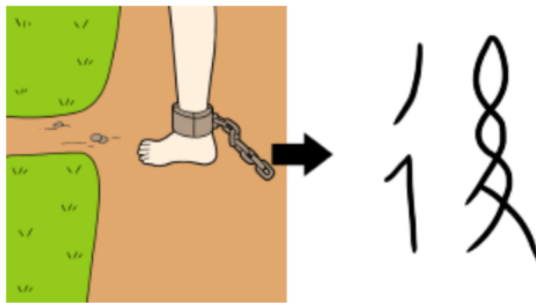
孝자는 '효도'나 '부모를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孝자는 耂(늙을 노)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子자가 耂자 아래에 있으니 글자의 구성으로만 본다면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孝자를 보면 백발이성한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노니는 孝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어른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이 孝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는 글자임은 틀림없다.

금문	소전	해서

출처 : [한자로드(路)] 신동윤 | (삽화) 변아름, 박혜현

7(2)
-
50

회의문자 ㉠



後

뒤 후

後자는 '뒤'나 '뒤떨어지다', '뒤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後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𠂔(작을 요)자, 攴(뒤쳐서 울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後자는 족쇄를 찬 노예가 길을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後자를 보면 족쇄에 묶인 발과 彳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 걸음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後자는 '뒤떨어지다'나 '뒤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